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설계공학과	학 번	2013**39	성 명	윤정욱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하일브론응용과 학대	파견학기	2017년 2학기
소요경비	약 1100만원				
주거	기숙사는 3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학교와 가까운 기숙사(막스플랑크27)에 추가로 합격하여 매달 297유로, 신축 건물에 살았습니다. 학교(손하임 캠퍼스)와는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매우 가깝습니다. 인근에 aldi, netto, Lidl, Edeka 큰 슈퍼마켓이 있고 물가는 대개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주로 학생식당(무게로 가격측정)보다는 직접 해먹는 것이 저렴하여 주로 식료품을 사서 먹었습니다.				
룸메이트	룸메이트는 전공이 경영학과인 러시아 동생이었습니다. 대개 2인실이고 주방과 화장실만 같이 사용하고 방은 2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혹 1인실인 방도 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금오공대 6명, 경북대 2명, 울산대 4명 정도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건물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같은 건물 기숙사에 생활하였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하일브론은 독일의 바덴뷔르템부르크주에 위치해있고 위치적으로 독일의 중심에서 남서쪽에 위치 해 있습니다. 하일브론 응용과학대학은 Sontheim 캠퍼스와 Europa-Platz 캠퍼스 두 군데로 나뉘어지며 공학계열의 경우 Sontheim 캠퍼스, 서비스 및 마케팅, 경영 관련학부는 Europa-Platz 캠퍼스에서 주로 수학하게 됩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Sontheim 캠퍼스 : A101 International Office				
주말 및 여가활동	축구를 좋아해서 매주 학교학생들과 축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기숙사 앞에서 교환학생 애들끼리 나와서 맥주마시거나 혹은 친구들과끼리 인근 나라에 여행하였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없음				
전공	독일에 와서는 자동차공학과와 수업은 주로 들었고 타수업에 수강하는데 큰 제약이 없어서 다른 수업도 신청하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 개설된 강의 한에서입니다.				
수업	전공과목은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 실험, 멀티바디 실험, 휴먼 머신, 마이크로 컨트롤				

스케줄	<p>러 그리고 교양은 비즈니스 에딕스와 독일어 이렇게 총 7개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그 중 휴먼머신과 비즈니스 에딕스는 PPT발표가 주가 되었고 독일어, 마이크로 컨트롤러, 파워트레인인 필기시험이었고 멀티바디랩과 파워트레인랩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주였습니다. 독일어는 일주일에 2번씩 총 3시간 정도 있습니다.</p> <p>참고로 Pass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의 40%이상은 받아야 점수를 주며, 독일은 중간고사가 없고 오로지 기말고사만으로 시험의 성적을 반영합니다.</p>
학생할인 관련	<p>학생할인이 된다고는 들었으나, 잘 알지 못해서 거의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EU국가 비자 받은걸 보여주면 무료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박물관 중에서 시간대나 날짜를 잘 알아보면 무료입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p>
ISIC카드 활용	<p>하나은행에서 국제학생증을 약17000원 주고 발급받았습니다. 이걸로는 아테네에서 패스 통합권을 50%로 크게 할인 받았고 하이델베르크 성에 출입할 때, 조금 할인 받았습니다.</p>
영어공부	<p>책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미드보면서 대본공부와 TE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본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로 주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한국에서 공부했던 리딩, 문법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았던지라 말이 잘 안 나왔지만 최대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져서 무뚝뚝하게 있어서 아무래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최대한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충분한 스피킹 연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말하지 못한 표현들을 한 번씩 되새기며 상기시키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p>
여행	<p>독일이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되면 유럽을 쉽게 여행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항공이나 유럽버스를 잘 이용하면 알뜰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p>
교통	<p>하일브론의 교통의 경우 버스의 요금은 약 2.20유로정도이고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중 거주지등록을 마치면 HNV라는 하일브론 무료교통증이 발급되어 이 교통증만 가지고 있다면 하일브론 및 하일브론에서 조금 더 떨어진 마을에서도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독일기차의 경우 Bahn Card 25를 발급받으면 기차표를 발급할 때 25% 할인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Flixbus를 자주 이용했고 5개 99유로 하는 바우처를 사서 많이 다녔습니다.</p>
날씨	<p>9월에 독일에 갔을 때, 여전히 더웠고 11월부터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계속 추워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이랑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p>
해외인턴	<p>언어 실력만 된다면, 해외인턴을 학교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습니다.</p>
추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시청을 가게되는데, Semester 버스 티켓(무료 버스 탑승)과 100유로 바우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한달 고정 지출은 AOK보험료(나이에 따라 상이) 약90유로, 월세 200~297유로(기숙사마다 상이), 통신비 17.5 유로 정도입니다. 3. 정수기가 없고 물은 항상 사먹었습니다. 간혹 잘 모르고 탄산이 들어있는걸 사는데, still이라고 적혀 있으면 탄산 없는 물입니다.

	4. 꼭 여행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맥주 공장 투어 등등 다양한 경험이 될 만한 것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기회되면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보완점	교환학생 합격통보와 동시에 가면 모든 게 될 꺼라고 안일했던 생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영어 공부를 하지 못했던 점과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